



# 여성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복병, 난소암

황경진/일산자생당 여성병원장

**우** 리 나라 여성들에게 가장 많은 부인과 암은 자궁암이고 두 번째가 유방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세 번째가 난소 암이다.

일반적으로 난소종양은 젊은 여성층과 중년에 많이 나타나는 데 즉 삼분의 이가 20세에서 40세 사이에서 발생한다.

다행히 가임 여성에서 나타나는 난소종양은 대부분 양성이다.

난소암을 어떻게 예방 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 ●증상

대부분의 종양들은 거의 증상이 없거나 미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는데 흔한 증상으로는 복부 팽만, 복부 통증이나 하복부 불편감, 압박감과 비뇨기 혹은 소화장애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급성통증인 경우에는 부속기 염전, 낭종파열이나 낭종안으로의 출혈을 의심할 수 있다.

## ●악성과 양성의 구별점

대개 양성인 경우는 단측(unilateral)낭종성, 유동성(mobile), 유연성(smooth)인 경우이고, 반면에 악성인 경우는 양측성, 고형종괴(solid), 고착성(fixed), 불규칙하고 복수(ascites)와 연관이 있거나 더글러스외에 결절들,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면 좀 더 악성일 가능성이 많다.

가임종양은 기능성 난포낭종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황체낭종자궁내막증, 다낭종성난소증후군 등이 있으며 진성종양은 양성과 악성으로 분류시 양성기형종의 80%가 가임 연령에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장액성난소종, 점액성난소종양, 기타종양 등이 있으며 악성으로는 상피세포종, 성기삭간질종양, 과립막세포종, 악성생식세포종양 등이 있다.

## ●진단 방법 및 치료

난소종양의 진단은 이학적 검사 및 직장검사가 필요하고 또한 초음파검사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추가하여 컴퓨터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을 사용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종양지표인 CA-125검사도 유용하며 조직학적 확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난소종양은크기가 8cm 이하인 경우 초음파상 낭종성인 경우 보존적 치료와 2개월간 추적 관찰하거나, 초음파유도하의 낭종흡인술이 시도할 수 있으나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절대금지이다.

8cm 이하라도 고형종괴이거나 8cm 이상인 경우 수술적 치료로 생식능력과 호르몬 생성능력의 보존을 위하여 정상난소조직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방법을 사용한다.